

공급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성명·보도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성명] 기만적 대국민담화, 총파업과 즉각 퇴진 촛불항쟁으로 끝장내자

작성일 2016.11.29 작성자 교육선전실 Views 5492

[박근혜 3차 담화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기만적 대국민담화, 총파업과 즉각 퇴진 촛불항쟁으로 끝장내자

한 마디로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기만적 대국민담화였다. 모든 국민들은 즉각 퇴진 요구에 직면한 불법 권력자의 퇴진선언과 하야발표를 기다렸다. 그러나 퇴진발표가 아닌 책임 떠넘기기와 시간 끌기 꿈수였고, 아무런 질문조차 허용치 않는 독단적 독백에 불과했다. 박근혜는 세번째 담화로 활활 타오르는 분노한 민심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

박근혜는 뻔뻔하게도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악한 거짓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을 사유화해 철저한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임이 밝혀졌다. 아직 더 밝혀져야 할 범죄행위도 부지기수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단 한순간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라며 범죄를 부인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피해가며, 탄핵소추 국면을 빠져나가려는 꿈수다. 또한 즉각 퇴진과 구속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계략이다. 국민은 주변관리 못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직을 이용해 범죄, 최순실과 공모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구차하게 살아 보려는 파렴치한 공 떠넘기기다. 자신의 퇴진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국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결정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금 친박, 비박은 물론 온갖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박근혜퇴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다 퇴진 시기와 절차를 합의하라는 공을 넘긴 것은 결국 정국 혼란을 더 가속화하고 자신은 그 책임으로부터 피해가려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야당이 새누리당과 협의해 퇴진시기는 물론 정국수습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결국 박근혜 자신과 협의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은 박근혜의 꿈수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만 모르고 있다.

11월 4일 두 번째 담화가 11월 12일 백만 촛불항쟁을 만들어냈듯이 이번 세 번째 담화는 11월 30일 1차 총파업-시민 불복종의 날과 12월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에 전 국민을 거리와 광장으로 모아내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즉각 퇴진이다. 어떤 꿈수나 술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시간 한 시간이 국민들에게겐 지옥과 같은 시간이다. 국회, 특히 야당은 박근혜의 뻔뻔한 책임 떠넘기기를 거부하고 국민과 함께 즉각 퇴진 항쟁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가 오늘 담화를 통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거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11월 30일 총파업을 더욱 강력하고 위력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12월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에 서울과 전국 각 지역에서 더 큰 촛불항쟁을 이어갈 것이다. 더 이상 버티지 마라.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1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